

아내 학대 문제와 임상 사회사업가의 개입에 대한 소고

한인영*

I. 서 언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나열해 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아내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남편에 대한 학대, 형제 자매간의 학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는 아내에 대한 신체적 및 성적 학대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며 이후, 아내 학대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

학대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인 가해를, 혹은 가해의 염려를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Dutton. 1992) 아내 학대는, "배우자로부터 고의적이고, 심각하며, 지속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받는 여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아내학대의 현황, 왜 폭력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제반이론 및 임상 사회사업가의 개입 기술을 알아보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례 중 하나를 살펴봄으로써 아내학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II. 학대의 현황

미국의 전국 사회사업가 연합회(NASW)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현재, 배우자 학대로 시달리는 여성의 숫자가 180만에서 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Steinmetz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일반 가정의 60%가 어떤 형태로든지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10%는 정기적으로 학대받고 있다고 보고 했다. Steinmetz의 Data로 유추해볼때 미국 전국적으로 470만의 여성이 학대받고 있는 셈이다. (NASW. 1990)

다른 조사자들은 Steinmetz의 조사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어쩌다 한번 따귀를 때리는 행위에서부터 심한 매질까지 모두 배우자 학대라고 정의를 내릴 경우, 부부의 50%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Langley와 Leiy의 배우자 학대에 대한 일곱번의 조사결과, 55~65%의 결혼 부부들이 학대 행위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2600만 내지 3000만의 학대 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극심한 매질, 발길질, 총이나 칼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위협당하는 행위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활을 영위하는 여성을 적어도 2%라고 보고한 조사도 있다. 1970년 FBI 보고서는 타살의 25%가 가정내에서 발생했으며 반수는 부부간의 살상행위였다고 보고했다.

* 서울대 강사

(New York times. 1992) 미국 전국 여성 학대 방지 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4백만의 여성이 현재 배우자(남편, 혹은 동거인) 혹은 과거의 배우자로부터 매 맞고 있으며 결과 2000명 내지 4000명이 살해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New York times. 1992) 미국 여성의 건강문제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가정폭력이며 자동차사고, 강도, 강간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은 숫자라고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의 50~70%는 아이들도 학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적인 폭행에 대한 보고도 매우 놀랍다. 성은 남편의 권리요, 아내의 의무라고 믿었던 종전과는 달리 70년대 이후의 보고서는, 미국에서의 여성의 성 권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추세이다. (Doran. 1980) 임시보호처(Shelter)에 있는 여성 중 1/3은 남편에게서 강제 성교를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정상 부부의 8%는 법적 강간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행위를 남편으로부터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위에서 밝힌 미국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때, 한국에서도 아내 학대 행위가 심각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내 학대 문제에 대한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여성의 전화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전체의 68%로 나타났다. 김광일(1992)의 조사에 의하면 구타당했다고 보고한 여성의 25%가 매일 맞는다고 보고했으며, 서울의 가정 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는 병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가해였다고 보고했다. 한국 실정에 대해서는 아내 학대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미비한 형편이다. 전국 병원의 응급실에서 폭행 상해로 응급처치를 받은 여성 호소자의 숫자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조사가 아쉬운 형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내 학대 행위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제반 이론들을 다음에 논하고자 한다.

III. 폭력에 대한 이론

1. 폭력문화이론

이 이론은 문화속에서 폭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도덕성, 신념, 태도, 지식, 법, 습관, 표준, 관습 등이 어느정도의 폭력을 감수한다고 본다.

2. 피학대심리이론

Freud는 여성이 본래부터 피학대적이며 거세희망의 가학적 심리가 본인에게로 되돌아와서 자학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와 실제로 여성이 신체적 고통을 통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는 피학대 이상 성욕자라고 해석하는데 이와 같은 입장이 피학대심리이론이다.

3. 좌절-공격상관이론

목적하는 바가 좌절되어 그 결과, 공격적 행위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가학 행위는 남성이 실직, 경제적 난관, 직장 스트레스 등이 높을수록 가학 행위가 높은 조사결과에 비추어 해석되었다. 이 이론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좌절시켰을 경우, 학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함으로써 폭행의 책임을 희생자인 아내에게 전가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4.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폭력행위가 학습된 행동이라고 본다. 사회학습은 일정한 조건을 통해서 혹은, 관찰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다. 즉, 폭력행위는 그것을 경험했거나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었다고 본다. 학대자의 65%는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가족내의 폭력에 접했던 경험이 있다고 Qanby and Harris(1979)의 조사가 밝히고 있다. 또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본인들이 폭력의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research들도 많이 있다.

5. 무위감학습이론

Seligman은 개 실험에서 무조건 반사를 경험하면 동기가 떨어지며 반응이나 결과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 바른 학습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피학대 여성은 무위감(helplessness)을 사회 혹은 가정내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감정에 빠진다는 이론이다.

6.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관계란 보상을 추구한다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Goode (1973)는 학대받은 여성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투자했고 받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관계를 청산하려 하지 않으며 교환이 좀 더 적절한 균형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한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부부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이나 교환을 경험하며 폭력은 부당한 교환이었다고 생각되는 분노감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7. 자원이론

남편이 쓸 수 있는 자원(resources)이 고갈될 경우, 폭력이라는 자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다른 자원들, 즉 수입, 교육수준, 권력 등 전통적인 자원에다가 폭력도 하나의 자원으로써 사용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남편들의 성취도가 아내보다 낮을 때 폭력이 생긴다고 본다.

다음에서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학대받은 여성이나 가학대 남성이 클라

이언트일때 임상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임상사회사업가의 개입

임상사회사업가는 배우자 학대 부부를 치료할 때에 몇가지를 특히 주의하여 사정(assess)한 후에 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선, 가해자의 폭력의 종류가 결혼생활의 스트레스나 분노에 대한 단순한 표출로써 다만 그 방법이 비적절하였던 것인지 폭력 그 자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고 통제하려 했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전자를 표현적인 폭력, 후자를 도구적인 폭력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것은 폭력이 있는 이후, 자기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럽게 생각하여 후회의 빛을 보이는 경우에는 표현적인 폭력이며, 가족들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정서적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조작적이고 표피적인 결모습만 보이는 경우에는 도구적 폭력일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임상 사회사업가는 그 동안의 폭력이 있어왔던 history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하며, 약물중독이나 술 중독의 여부, 칼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는지의 여부, 가학적 성행위가 있었는가의 여부, 어렸을 때 폭력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 비정상적 질투심이 있는가의 여부 등을 사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임상사회사업가가 가해자의 표현적인 폭력으로 아내를 학대한 경우에 대한 폭력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도구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인 면, 정신과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좀 더 포괄적인 언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위기개입방법

임상사회사업가는 우선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응급실에 보내어 상해를 치료받게 한 후, 임시 보호처에 보내어 심신을 쉬게 한다. 또 학대 그 자체가 그녀에게 외상(trauma)이었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DSM-111-R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증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DSM-111-R 정신장애의 분류와 진단(P. 156-157)

- 1)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사건이 상기됨
- 2) 반복적인 사건에 대한 꿈
- 3) 마치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갑작스럽게 행동하거나 감정을 느끼며 환경 또는 내적 상상으로 인한 자극에 수반되어 일어난다.
- 4) 중요한 활동에 대한 현저한 흥미감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느낌, 위축된 정동
- 5) 과민한, 또는 지나치게 놀라는 반응, 수면장애, 죄의식, 기억장애 또는 집중곤란, 외상성 사건을 상기시키는 활동의 기피,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거나 그와 비슷한 사건을 접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됨.

위기개입 방법과 지속적인 정신 분석 치료를 통해 피해자의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치료해야 한다.

2. 분노조정방법

가해자에게 분노를 조정하는 기술을 가르치며, 긴장이완(Relaxation techniques) 기술을 가르치고, 분노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르친다.

3. 의사소통개선방법

경청의 기술, 효과있게 표현하는 기술, 자기 주장을 적절히 하는 기술, 수동적인 표현과 공격적인 표현에 대한 기술, 갈등에 대해 해결하는 기술 등을 가르치며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4. 통찰력증진방법

폭력의 원인과 싸이클, 성적 기능, 재정문제등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분노에 대한 자아인식을 갖게 하며 특히, 분노가 일어나기까지 내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적 요소들, 좌절감, 죄의식, 우울감, 무위감, 의존감, 불신감 등에 대해 분석해 준다.

이러한 개입방법들에 대해서는 개인, 부부, 집단으로 치료형태를 정할 수 있다.

1. 개인치료

부부 중 한 명만을 클라이언트로 삼거나 부부 두명을 별도로 각각 다른 목표 설정하에 치료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본인의 행동 유형이나 겪은 외상에 대한 치료와 통찰력 증진에 노력한다.

2. 부부치료

부부가 둘다 결혼자체에 대해서는 지속과 발전을 희망하고 있고 폭력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부치료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부부의 관계성과 폭력 제재에 대한 적합한 계약에 중점을 둔다.

3. 집단치료

여성만의 집단, 남성만의 집단,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집단을 구분되며 각 집단에 따라 지도의 성격이 달라진다. 분노조정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여성

의 심리치료에 중점을 두기로 하며 부부의 관계성과 의사소통, 혹은 폭력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V. 법적인 문제

미국의 각 주에서는 피해당한 여성의 보고가 있으면 경찰을 입건하고 가정법원과 형법원에 케이스로 등록된다. 폭력의 장면이 목격된 경우에는 물론 남편을 체포할 수 있다. 미시간 주 Duluth에서는 피해자에게서의 멍든 자국을 발견하고 비행이 남편에게 더 있었다고 보고되는 경우, 네시간 이내에 남편을 체포할 수 있게 하였다. 체포되면 초범인 경우, 하루밤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유죄가 인정되면 30일간 구류에 처하며 일정기간동안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가학대 남성을 위한 26주짜리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어떤 주에서는 12주 이상의 카운셀링을 받게 하며 다른 주에서는 1년짜리 프로그램에 참석시키기도 한다. 이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남성들이 카운셀링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아내들이 경계심을 늦추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Duluth의 강력한 법적 제제가 생긴 이후로 가정 폭력의 케이스는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 되었다. 1990년에 미국 의회에서는 폭력이 있는 쪽의 부모에게는 부부의 이혼시 자녀양육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30개의 주에서 이를 채택했다. 많은 조사자들은 어린시절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성인이후, 가학적 관계에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아내학대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과 실무에 임하는 경찰, 변호사, 검찰의 향상된 인식이 매우 절실하다 하겠다.

VI. 사례연구

본 사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상담사례집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써 위커의 상담과정을 발췌, 요약,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상담사례집. 1992)

1. 내담자의 인적사항

연령	관계	직업 및 기타사항
44	부	취로, 폐결핵환자, 알콜중독자
39	모	5년전 가출
18	Ct	여상 2년
16	남동생	중3년 중퇴, 가방공장재직중

2. 문제개요

- 부의 주벽과 폭력으로 5년전 모 가출.
- 부의 폐결핵 발병.

부의 알콜중독증.

부의 자녀에 대한 심한 폭언과 학대.

남동생은 가출 후 하숙집에서 가방공장재직.

3. 현재의 서비스 프로그램

취로사업, 학비지원, 의료혜택

4. 상담 및 치료과정

▷ 1차상담: Intake

▷ 2차상담:

- 클라이언트 : 부가 심한 알콜중독으로 술에 취하면 옷을 벗은 뒤
혁대등으로 아이들을 심하게 구타한다고 진술함.
- 워커 : 가출 및 질병 문제에서 아동학대로 문제 확대하였다고 판단.

▷ 3차~13차 상담: 부의 입원 및 의료혜택에 대한 제반 상담 및 절차

▷ 14차상담 :

- 워커 : 부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고아원에 입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 접근
- 클라이언트 : 성적학대의 시도는 있었으나 실패했다고 대답.
- 워커 : 부의 입원 문제와 입원 보증금에 대해 의논.
- 클라이언트 : 외갓댁에서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

▷ 15차상담 : 병원 입소가 취소되었으나 클라이언트는 고아원 입소를
원했으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남동생과 같이 있게 해달라고 워커
에게 호소함.

▷ 16차상담 : 남동생과의 면접에서 그는 열심히 가방공장에 다니며 기술
도 배우고 저축도 함으로 현 생활에 만족 표시. 클라이언트는 학교
재학 중 외할머니 댁에 있겠다고 말함.

▷ 19차상담 : 부의 알콜중독 증세가 호전되었고 폐결핵 증세도 나아져서
취로사업중임.

이 사례에서 워커는 부의 알콜중독증과 폐결핵 및 재정지원에 대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인 반면, 아동학대 및 성적학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의뢰했
다는 시도만 있을 뿐 follow-up이 되고 있지 않다. 남동생의 가출 및 학교 중
퇴도 부의 학대 때문이었으며 클라이언트도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의 대상
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
본적인 원인은 부의 극심한 학대로 인하여 모가 가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내학대가 시작되었을 당시에 격리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되었던 아동학대 및 가족 전체의 해체위기가 방지되었을 것이
다.

학대받은 여성은 고립감에 시달리며 경악스러운 상황을 혼자서 견뎌야 한다

는 외로움을 느낀다. 피학대 여성은 보복이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여성들은 대개 죄의식, 창피스러움, 무기력함, 불안정감, 두려움, 낮은 자존심, 분노, 가학자에 대한 사랑 등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스스로도 혼돈되게 마련이다. 가정내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대해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성은 가학자와 계속 살면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떠나려면 죄의식에 시달리게 된다. 위에서 인용한 사례는 여성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떠남으로써 문제 상황을 벗어난 예로, 이는 한국사회의 가정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함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VII. 결 언

본 소고에서는 아내 학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현황, 폭력에 대한 이론, 워커의 개입 방법 및 사례 분석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고 실제로 피학대 여성에 대한 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사업 전문인 양성이 요망되며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절실하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김광일,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1992
2. 이근후(번역), 정신장애의 분류와 진단편람(DSM-111-R), 하나의학사, 1988
3. '92 사회복지 전문요원 상담사례연구모음집(제 1집)
4. Dutton, Mary Ann, Empowering and Healing the battered woma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1992
5. Liane Kavis and Jan Hagan, The problem of wife abuse : The interrelationship of Social policy and socialwork practice in socialwork. Vol. 37 no. 1(pp15-21), 1992
6. NASW Report, Association for advanced traning in the behavioral sciences, 1990
7. New York Times magazine, Feb. 16. 1992
8. Ucko, Lenora Greenbaum,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Confronting wife abuse through folk stories Social Work Vol. 36.no.5 Sep.1992. (pp 414-419)